

## 문제가 생기면 개선방법을 찾아라.

Don't find fault, find a remedy: anybody can complain. (Henry Ford)

결점을 찾지 말고, 개선방법을 찾아라.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다. (헨리 포드)

세계적인 자동차 제작회사 포드의 창업자인 미국 출신 헨리 포드(Henry Ford)는 자동차 생산에 대량생산 체제를 도입하여 자동차를 대중화하였고, 자동차 시대를 개척하여 자동차 왕으로 불린다. 그가 미국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사고방식의 결과라고 본다. 그는 어떤 일을 하면서 문제에 봉착했을 때, 결점을 찾는 대신 개선방법 즉,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다. 그의 말대로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고,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만 해서는 발전이 없다.

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일에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거나 누군가가 어떤 문제에 연루되면, 그 문제에 대하여 침소봉대(針小棒大; 작은 일을 크게 과장하여 말함)하는 경향이 있다. 관련자의 결점을 있는 대로 찾아내고, 없는 결점도 그럴듯하게 만들어 내 퍼뜨리는데 혈안이 된다. 물론, 언론도 예외는 아니다. 한 건 주의가 팽배

하여 한술 더 뜨면 뗏지 결코 보통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다. 정작 그 문제에 대해 파헤치기만 할 뿐, 개선방법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드물다.

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이 나로 하여 “결점을 찾지 말고, 개선방법을 찾아라.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다.”라고 말하는 헨리 포드의 말을 상기시키게 만들었다. 이미 일어난 문제에 대하여 잘못된 원인을 찾아내고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, 그 보다는 다시는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법 즉, 해결책을 찾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자는 것이다.

우리나라 경제계에도 해결책을 찾아 큰 업적을 남긴 분들이 있다. 그중에서 “길이 없으면 만들며 간다.”고 말하며 교육에 보험을 도입하여 대한교육보험을 설립한 고 신용호 회장과 “해보기나 했어.”로 유명한 현대그룹의 창업자 고 정주영 회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.